

광주시 치매 친화사회 조성 속도 낸다

20일 치매국가책임제 기념행사
어린이 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2018년부터 5개 안심센터 운영
검진·실종예방 등 윈스톱 서비스

광주시가 전국을 대표하는 '치매 친화사회'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6회 치매극복의 날과 치매국가책임제 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역치매센터, 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친화사회'를

주제로 열린다. 기념행사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서 광주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치매 인식개선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수상작을 선정해 이번 행사기간동안 전시한다. 시는 치매 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는 물론 치매 관련 지원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는 2018년부터 5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이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 치매환자 조호물품(위생소모품) 지원, 치매치료관

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치매환자 센터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치매안심마을(18개소) 운영, 배회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치매공공후견사업 등 치매환자의 돌봄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증가하는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와 배회감지기도 보급 중이며, '치매 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를 통해 치매환자와 보호자간 스마트폰을 매칭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치매 환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치매 친화 사회 조성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5·18 출동기종 이전·전시 주민설명회

25일... 전시방안 등 의견수렴

광주시는 "25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대강의실에서 '5·18 출동기종 이전·전시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5·18 출동기종과 장갑차 등의 광우 이전·전시는 2차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민 동의를 구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광주시의회의 제안에 따라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설명회는 치평동 인근 주민과 5월 단체, 트라우마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5·18 출동기종 이전·전시사업 내용과 전시 디자인안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5·18 출동기종 이전·전시 사업은 지난해 9월 제

13차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출동장비와 동일 기종의 이전·전시를 광주시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앞서 사업 추진을 위해 5월 단체(5·18 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5·18기념재단, 오월어머니집 등)의 의견을 듣고 5·18자유공원 전시 설치에 전월 찬성의 회신을 받았다. 또 지난 1월 5·18기념사업위원회에 안전으로 심의하고, 현재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주차장 부지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장비를 임시 거처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5월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5·18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담아내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24억원 부과

10월 4일까지 전 금융기관 납부

광주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524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56억원, 서구 352억원, 남구 199억원, 북구 313억원, 광산구 504억원이다.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인섭 광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인 10월4일까지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1일부터 자치구별 부동산 사고 예방 교육

광주시 공인중개사 4522명 대상

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광주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452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자치구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덕은 변호사가 교육 강사로 나서며,

전세 사기 유형과 실수하기 쉬운 중개사고 유형, 신탁부동산 중개 등을 강의한다. 또 공인중개사의 법률적 책임 소지를 판례 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자치구별 교육일정은 ▲북구 21일 오후 1시 30분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산구 10월 11일 오후 2시 수완문화체육센터 ▲남구 10월 17일 오후 2시 남구문화회관 대강당 ▲동구 11월 6일 오후 2시 동구청 대회의실 ▲서구 11월 29일 오후 1시 30분 서구문화센터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공동주택 등 공사현장 15곳 안전점검

광주시는 "광주지역 건설공사장 사망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공사현장 15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광주시에서 진행 중인 건축 공사장 가운데 공정을 30~80% 이내, 추락사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장이다.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시설(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기준과 존치기간 준수 여부 ▲안전 관리계획서 적정성과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유차 폐차 서두르세요

광주시 보조금 마감 임박
10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오는 10월1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147억원 규모로,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3400대, 신차 구매 860대 등 4260대, 10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잔여 예산 42억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서류 검토 및 수령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 11일까지 받는다. 보조금 지원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78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민원상담,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제반 사항은 환경부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대기정책과 친환경경차전환팀(062-613-4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신용회복위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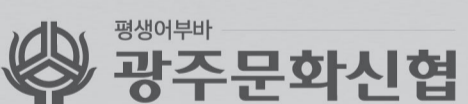
광주도시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지역단은 지난 14일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교육 공동사업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 22일까지 추석맞이 도로환경 정비

24시간 기동보수반 운영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오는 22일까지 추석맞이 도로환경을 제정하기 위해 도로환경 정비 작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관리도로 378개 노선, 연장 597km 구간에 포장도로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안전시설 정비, 도로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한다. 정비규모는 4대 관문도로 16km 차선 재도색, 북문대로 등 6개 노선 23km 도로재포장,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 정비 105km, 무진대로 등 도로변 풀베기 11개 노선이다. 시는 지난 11~13일에는 빗고을대로와 제2순환

로 두암교-각화IC 2개 노선(광주시 관리구간 13km)에 광주순환도로투자처, 북구청과 합동으로 전문인력, 장비를 투입해 도로 경계에 식생하는 잡목이나 도로변 퇴적 토사 등을 제거했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앞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훼손된 도로에 대해 도로 재포장(31km)과 보수 484개소 등을 완료했으며, 도로보수반 3개조를 운영해 포트홀 1만8390곳도 정비했다. 또 추석 연휴기간에 도로이용 불편 민원 처리를 위해 기동보수반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한편 빗고을콜센터(120),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팀(062-613-6796, 6797)으로 신고된 긴급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도로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